

# 한 국 선 주 협 회

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 해운빌딩 9층 / TEL.739-1551~7 FAX.739-1562  
www.shipowners.or.kr 담당 : 강민균 대리 (marine@oneksa.kr)

문서번호 해무 제 18 - 122 호

시행일자 2018. 6. 11.

수 신 전 회원사 사장

참 조 안팎/운항 담당 부서장

제 목 **중남미 카리브 해역 해적경계활동 강화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'18.04.26. 수리남 및 가이아나 연안에서 해적이 선박 4척을 공격하여 선원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되었으며, '18.05.04. 수리남 연안에서는 선장 1명이 해적들에 의해 살해되는 등 최근 베네수엘라, 수리남, 가이아나 등 카리브해 연안에서 해적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
3. 특히, 국제상공회의소(ICC) 국제해사국(IMB) 해적정보센터에 따르면, 2017년 남미에서 발생한 해적사고 24건 중 12건이 베네수엘라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, 동 해역에서는 2018년 1분기에만 총 5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선원·선박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BMP4 및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·대응 지침서를 준수하고,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련 특이동향이 있는 경우 즉시 **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(Tel:044-200-5895~6)**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해양수산부 공문 1부.

한 국 선 주 협 회 장

